FX Market Daily

2026-03-13

전일동향

전일대비 14.70원 상승한 1,481.20원에 마감

12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4.70원 상승한 1,481.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3.60원 상승한 1,480.1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가와 함께 달러화도 오르며 1,481.2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7.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9.39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80.10	1495.20	1475.30	1481.20	1479.80
엔화	922.43	939.27	921.50	929.39	-
유로화	1695.96	1722.15	1692.05	1704.77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85	-3.85	-9.15	-17.18
결제환율(수입)	-0.25	-2.47	-6.82	-13.6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이란의 강경 대응에...1,49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2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81.20) 대비 11.85원 상승한 1,491.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유가 급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강달러에 추가 상승 전망한다. 간밤 이란 차기 지도자인 무즈타파 하메네이는 성명문을 통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며 전선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서 한 발 빼려는 모습을 보이나, 이란에서는 강경 정권 유지, 추종 세력과 무장 세력 등이 반격과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쟁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는 하메네이 발언 이후 10% 급등했고, 브렌트유는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며 마감했다. 각국 정부가 유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원유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유가 하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달러 강세에 달러/원 환율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시장 우려가 달러 강세를 재차 자극하며 금일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과 외환당국 경계감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87.33 ~ 1496.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3831.0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1.85원↑
	■ 美 다우지수 : 46677.85, -739.42p(-1.5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8.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35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